

집단따돌림의 '다양한 유형과 교육적 극복방안 : PC통신에 나타난 집단따돌림을 중심으로

정 용 교*

오늘날 청소년들은 독특한 모습으로 그들만의 삶을 살아간다. 또, 그들은 이전과 달리 비교적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고유한 말과 행동의 측면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단지 요즈음 아이들은 어른들과 아주 다르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우리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독특한 문화의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독특한 행동과 문화에 관한 중요한 특징을 검토해 볼 것이며 그리고 청소년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특히 본 논의에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원명 왕따)"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본 논의에서는 "왕따" 현상의 발생 배경을 영상문화와 입시위주의 교육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이론적 토대로 삼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PC통신 상에서 나타나는 "왕따" 현상의 다양한 유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청소년들 사이에서 "왕따" 현상이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또 이 현상이 그들의 삶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따" 현상이 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함을 염두에 두면서 따돌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적 대책에 대해서 다루어본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환경에서 "왕따" 현상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동시에 실제로 청소년들이 "왕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밝히려 한다.

I. 머리말

작년(1998년) 한해 동안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왕따' 사례가 4천여건에 이르며 피해학생이 5천4백 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교육부의 조사발표가 있었다. 그 통계는 교내 무기명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크고 작은 집단따돌림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 준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학교폭력은 다소 주춤해진 대신 따돌림 현상, 일

* 영남대학교 강사

명 ‘왕따’와 같은 간접 폭력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왕따로 지목하여 따돌리는 대상도 전처럼 신체적 약점 등을 지닌 학생에게 한정되지 않고 공부 잘하며 모범적인 학생까지도 포함되며, 그리고 그 괴롭히는 수법도 더욱 잔인해지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킴퍼스나 압정으로 손찌르기’, ‘우유에 설사약 넣기’ 등의 여러 가지 수법이 동원된다. 피해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결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98년 11월 4일 울산 모 여고 1년 A양은 왕따를 견디다 못해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자살의 이유는 “못생겼다”며 급우들로부터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제주 모 초등학교 6년 B양은 작년 10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원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양은 반장으로써 공부도 잘해 더욱 주위에 충격을 주었다.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초등학교 여학생 가족들은 담임교사와 감독청인 서울시를 상대로 4억8천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하였다(조선일보, 98. 12. 8). 이처럼 최근 들어 주위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들이 부쩍 자주 매스컴에 오르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최근의 각종 사회·문화적 환경은 오늘날 청소년들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V,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영상매체의 비약적 발전은 청소년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전과 다른 청소년문화를 형성시키고 있다. 요즘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왕따현상도 바로 최근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는 영상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청소년들은 치열한 입시적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입시문화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영상문화와 입시문화는 최근 청소년들의 독특한 언어와 사고, 그리고 행동의 특이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 및 입시문화를 비롯한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우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법 내지 대책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먼저, 오늘날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따돌림 현상이 왜 최근 들어 부쩍 자주 발생하는가에 대해 나름대로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 특히 영상문화 및 입시문화를 비롯한 청소년문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해봄으로써 왕따현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왕따현상의 여러 종류를 PC통신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 봄으로써 오늘날 학교현장에서 왕따현상이 실제 얼마나 다양하고 심

각하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 밝혀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반 현상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왕따현상의 극복방안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왕따현상이 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함을 염두에 두면서 왕따현상에 대한 교육적 극복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그런데 본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논자는 PC통신에 학생들이 직접 올린 왕따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의 내용을 수집하였다. 그 이유는 채팅과 게시판 글쓰기를 비롯한 컴퓨터 통신문화가 오늘날 청소년들의 삶에 점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컴퓨터 통신이 갖는 철저한 익명성 때문에 왕따와 같이 밖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파악할 수 없는 잠재적 성격까지도 규명해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왕따현상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좋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왕따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는데도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따돌림 현상의 사회적 특성

오늘날 청소년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텔레비전, PC통신,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각종 영상매체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상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상매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과거의 청소년들은 부모, 형제, 선생님들부터 자신의 행동의 준거를 마련하였음에 비해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준거를 바로 각종 영상매체에서 찾는다. 동시에 그들은 TV, 광고, 비디오, 컴퓨터, 영화 등의 각종 영상매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으로 해서 과거 청소년들 및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체계와 행동특성을 형성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오늘날 젊은이들은 틈만 나면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보며,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 각종 영상매체는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며 늘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또 최근 들어 새롭게 출현하는 영상문화는 거의 다가 뉴미디어이건 혹은 기존의 미디어 영역이건 간에 청소년을 주요한 고객으로 삼고 있다(박명진, 1991: 238-240; 하종원, 1998: 455). 실제로 청소년들은 각종 영상매체를 시청함에 있어서는 성인들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질적인 면에서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인식방식은 부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부모의 기본취향이 쉬운 오락물이거나 기껏해야 이미 제작

된 프로그램 및 정보일 따름인 반면, 아이들은 단순히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대신 스크린 상에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변경시켜 받아들인다(하종원, 1998:455).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은 뉴미디어의 경우 질적인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성인층을 능가하고 있으며, 점차 그 경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컴퓨터는 기존의 매체와 본질적으로 다른 매체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주요특성인 사적 공간 속의 개인 취향성은 청소년층이 처한 환경 및 적성과 매우 부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일부 학자들은 청소년들을 '네트세대'¹⁾라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그들은 각종 네트워크에 익숙하며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도 각종 육외 간판, 대형 스크린 등의 현란한 이미지들로 가득차 있다. 이른바 젊은이들을 둘러싼 생활에는 각종 영상 이미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처럼 영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들은 문자와 인쇄에 익숙하였던 세대에서 가능했던 읽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보고 듣고 느끼는 전자적 의사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 영상매체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심지어 오늘날 학교공부에서도 기존의 문자적 매체에 입각한 교육이 아니라 컴퓨터, OHP, 비디오 등의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수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영상매체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각종 영상매체에 더욱 익숙하게 되고 있다. 예컨대 요즘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숙제를 내면 스스로 애써 하지 않고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각종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약간 변형시켜 제출한다.

또, 각종 영상매체들은 젊음과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고, 동시에 사치와 부유함의 이미지들도 함께 부각되면서 오랫동안 억압되어왔던 욕망들도 부추기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영상매체는 외양의 그럴듯함을 통해 더욱 소비를 부추기며 소비를 유혹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소비란 삶의 중요한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며, 바로 소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찾고 있다. 심지어 그들에게 있어 상품 소비는 물질적 소비욕구의 일차적 만족에서 벗어나 정신적 소비와 서비스 소비로 전개되고 있으며, 동시에

1) 오늘날 신세대들을 부르는 용어는 다양한데, 주로 X, Y, Z 그리고 N세대 등으로 부른다. 특히 네트세대라 함은 70년대 말 이후에 태어난 2-22세까지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2세대를 가르킨다. 네트세대가 갖는 중요한 특징은 디지털 기술과 영상을 즐기는 세대로서, 그들은 날 때부터 영상, 인터넷, 게임 등의 환경에서 크고 자랐다. 그리고 그들은 넷를 통해 독식, 독절, 권위, 논리, 이성보다는 공유, 자유, 개방, 감성을 더특하고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정보화로 가는 길", 한국정보문화센터, 99년 7월호 및 이선이, "21세기의 새로운 주역 네트세대", 정보혁명, 생활혁명, 의식혁명, 백산서당(1998) 193-235쪽 참조할 것.

제화의 소비차원을 넘어 상징의 소비, 기호의 소비로서 그 자체가 의식과 행동 방식을 규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주은우, 1996: 44). 아울러 영상매체는 강렬한 자극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반복되는 일상과 통속적인 규범의 세계를 벗어나 범죄와 성(性), 악마적 충동 등과 같은 소재들로 표현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급기야 악과 같은 인간의 어두운 충동들은 빛의 세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소도구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서 세기말적 체험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사람들은 영상매체에 의해 그들 삶의 대부분이 규정되며, 개인은 교환가능한 묘사Copy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거짓된 개인성은 더욱 성숙되며 자아정체성은 사회에 의해 결정된 독점상품이며, 그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거짓 표상된다. 곧, 모든 것이 기호와 이미지로 환원되며 소비에서 개인들은 갈수록 세계와의 연관성을 상실한 자기도취적 인간유형이 되어가고 있다(주은우, 1996: 51). 그 결과 영상매체에 익숙한 개인들은 스크린 상에 제시된 것과 실제생활을 제대로 잘 구분할 수 없고, 동시에 상상력이나 반성의 계기를 갖기가 어려우며, 또 그런 계기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유를 하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영상매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X세대로서의 중요한 특징²⁾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유행추구 성향이 대단히 강하며 매사에 개인주의적 자세를 취한다. 그들은 힙합hip-hop 바지를 입고 맥도날드 햄버거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피자를 즐겨 먹는다. 또 그들은 PC로 중무장하고 있어 컴퓨터 마인드에도 익숙하며 통신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구하고 그들끼리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온 시기가 대체로 그렇게 힘들거나 험난하지 않았음으로 해서 미래 자신들의 삶에 대한 적극적 진취성이 부족하고 대체로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게 반응한다. 또 그들은 시장원리의 철저한 신봉자로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시기가 '금전이 왕'인 자본의 시대에 살았던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그들의 돈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 미덕이었던 공동체적 의식을 발휘하는 데는 아주 소극적이다. 다만 그들의 공동체 지향의식이 변화되었을 뿐이다. 즉 그들은 기존의 공동체적 의식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새로운 가상공동체 개념을 형성하면서 네트워크 신사회로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기도 한다.

영상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매사에 있어서 아주 개방적이며 솔직하게 표현하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한다. 그런 만큼 그들은 자

2) X세대에 대한 좀더 자세한 특징에 대해서는 이정호, "X세대의 특징", 포스트 모던 문화읽기, 서울대학교 출판부(1998), pp.205-228 참고할 것.

기의 이해관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정 영역 상당히 이기적이며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그들은 휴대폰, 배빼, 통굽 신발, 메이커 있는 옷 등등을 구입하는 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자 한다. 심지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괜히 알면서도 그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원조교제도 결국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임에도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만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그 일을 하고야 만다. 오직 그것이 돈과 성적으로 연결되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 뿐이지 그 밖의 어떤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 만큼 그들은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긴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기 일쑤이다. 친구를 사귀는 경우도 자기에게 필요할 때 친구이며,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버린다.

영상매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자라난 최근의 아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각가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극단적 자기중심성을 보이며, 동시에 소비지상주의적 삶의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지나친 자기중심성과 소비적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동료에 대한 배려나 따뜻한 애정을 사치로 생각하며 아무리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꺼이 왕따시킬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의 극단적 자기중심성과 소비지상주의적 삶의 자세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학생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왕따현상의 직접적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청소년들의 독특한 행동특성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입시위주의 공부에서 비롯된 입시문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교육을 받으면서 군대의 병영이나 교도소의 감방과 같은 교실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요구에 복종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도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오직 시험을 위한 공부에 전념하면서 철저하게 통제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몇몇 학생들은 이와 같은 학교생활에 대해 드러내놓고 불평을 터뜨리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현재의 입시위주 학교교육 체계를 따르고 있다. 불만이나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도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

내려 하지 않는다. 부모나 교사들에게 그들의 불만이나 문제 의식을 표출해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성세대가 볼 때는 학생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잘 따르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학생들은 분명 어른들과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요즈음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낸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할애하면서 공부에 상당한 강박관념을 갖고 살아간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그렇지 못한 학생이건 간에 공부라는 틀에 매여 압박감과 중압감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입시공부를 위주로 움직여지는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특징적 양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학생들에게 입시공부는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며, 교과서는 그런 '입시게임'을 하기 위한 단순한 텍스트에 불과한 것이다.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이 삶과 무관한 것이며, 더 나아가 실제적인 삶과 정반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부를 통하여 인생과 세상에 대한 참다운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오직 중요한 따름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생활 중에서 따뜻한 우정을 배우기보다는 치열한 경쟁정신을 체득하며, 오로지 숫자로 측정되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따져보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인생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양적으로 측정된 결과만을 중요시한다.

오늘날 학교교실은 삭막하기 그지없다³⁾.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잘하는 대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대로 모두 현행의 학교교육 체계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에서 모든 가치기준을 오로지 성적 한 가지로만 평가하는 현 체제에서는 제법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도 성적문제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또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굳이 성적문제가 아닌 그 밖의 뭔가에 대해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 특히 공부 못하는 학생의 경우는 자신의 앞으로 인생에 대해 '될 대로 되겠지'라며 거의 자포자기하며 살아간다.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의 학교체제에서 그들은 인생과 사회 그리고 자연의 의미에 대해서 거의 생각할 여유 없이 늘 무엇인가에 쫓기 듯 살아간다. 그런 삭막한 학교환경에서 그들은 우정의 의미는

3) 최근 교실에서는 더 이상 모범생이 큰 힘을 갖지 못한다. 그 대신 '날라리'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 학생들을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로 다스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최근 교육개혁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교실붕괴' 현상도 바로 '날라리' 문화의 보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혜경,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1996), 163-184쪽 참조할 것.

무엇이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은 왜 중요하며, 그리고 올바른 공부란 어떤 것이어야 하며, 그리고 왜 공부를 하여야 하는가 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오로지 학교에서 주어지는 학과공부를 열심히 하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그렇게 하여 이름난 상급학교에 진학만 하면 출세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뿐이다. 그런 과정에서 오직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만이 최고로 공부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

이처럼 치열한 시험과 입시를 중요시하는 공부 과정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심각한 정신적 공황상태 내지 정신적 삭막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일종의 정신적 삭막화 상황에서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상문화는 그들의 심성을 더욱 거칠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극단적인 가시적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성과주의적 사고방식이 만연하게 되고 매사를 차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그저 기본대로 살면서 순간을 즐길 뿐이다. 이렇게 자기 기본대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동료학생에게 심한 욕설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더욱 심하게는 집단으로 특정학생을 따돌려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급기야 그런 모멸감과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극단적 경우에 자살을 감행하기도 한다.

입시환경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친구의 개념에 대해서도 자기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쉽게 구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 즉 그들은 친구를 단순히 1회용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소위 '좀 논다'는 학생들의 경우 또래 집단은 대개가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끼리 모여서 형성된다. 그 집단에서 주도권을 잡은 학생을 중심으로 네 다섯 명 혹은 그 이상이 모이는데, 이들은 동급생 학급이나 학년에 커다란 위화감을 조성한다.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은 애들을 몇 명 찍어놓고 지나칠 때마다 온갖 언어폭력을 휘두르거나, 심한 경우는 함께 그 학생에게 육체적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혼자서는 못하는 큰 일이지만 몇 명이 모이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쾌감을 맛본 학생들은 점점 더 큰 비행을 저지른다. 또 그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동침으로써 얻게 되는 세력과 주변 학생들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더욱 단합하여 그들의 세를 주변에 과시한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들끼리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자기들 중에 한 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또는 자기집단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동안 친구였다는 사실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한 명의 학생을 집중적으로 괴롭힌다. 이런 상황에서 일명 왕따현상은 더욱 교묘하며 심각하게 나타난다. 물론 그런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집단적 보복이 두려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도 알리지 못한다. 이 경우에 그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흔히 가출로 이어지거나 그 밖의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다가 일정시간이 지나 그 학생들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왕따를 당했던 학생도 예전처럼 그들과 잘 어울린다. 또 다른 학생이 자신이 당했던 경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이전의 자신의 경험은 아랑곳없이 그 학생을 왕따시키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하게 괴롭힌다. 이전에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마저도 더욱 기고만장해져 왕따 당하는 아이를 못살게 군다.

이런 악행들은 최근 학교상황에서 드물지 않게 자주 목격된다. 보통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은 너무 튀거나 또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다른 친구들과 잘 사귀기 어려운 양 극단에 있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키가 작거나 또는 너무 큰 경우와 뚱뚱하고 못생긴 아이들에게도 흔히 나타난다. 최근에는 이런 경우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학생들도 왕따를 당할 수가 있다. 그저 짱(우두머리) 학생과 그를 둘러싼 몇몇 친구들의 기분에 따라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오늘날 학생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왕따현상은 영상문화의 발달과 입시위주 교육의 지나친 발달로 말미암아, 자아성찰 및 자기반성적 능력의 결여 내지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영상문화와 입시문화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왕따현상의 중요한 사회적 배경이 됨을 살펴보고, 이런 논의에 바탕하여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다양한 왕따현상의 유형을 검토해봄으로써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왕따현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PC 통신에 나타난 따돌림 현상의 다양한 유형

청소년대화의광장에서 1997년 9월 전국 41개 초·중·고교의 남·여학생 1,6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구본용, 1998. 12:87)에 의하면 30%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여학생이 32%로 남학생의 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이 높다고 하며, 그리고 초등학생들 경우 46%, 중학생의 경우 28%, 고등학생의 경우 25%가 따돌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

하면, 초·중·고생의 4명중 1명 꼴로 왕따를 경험했다고 한다. 전국 54개 초·중·고 학생 6,893명을 대상으로 1년간 왕따 피해를 조사한 결과 24.2%의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999. 1. 18).

전문가에 의하면(최영란, 1998. 12:131), 집단따돌림이 나타나는 형태는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다. 학급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학생이 어느 한 학생을 대상으로 따돌리기로 작정을 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서서히 혹은 한꺼번에 말을 붙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완전히 고립시킨다는 것이다. 대체로 왕따의 가해자 학생들에게 아이들을 왜 따돌리는가에 대해 물으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또는 “너무 잘난 체해서”, “너무 바보 같아서”라고 말한다. 많은 경우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은 자신이 왜 따돌림을 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중앙일보, 1999. 1. 18:42), 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한다. 잘난 척 한다(66%), 이기적이다(51%), 불신을 준다(48%), 이상한 언행(36%), 남과 어울리지 않는다(33%), 지능이 낮다(30%), 남을 못살게 군다(24%), 왕따 편을 든다(11%), 전학 왔다(9%) 등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지니고 있는 학생 등 전혀 반항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 결국 성격이 튀거나 유약한 아이들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며, 이들은 대체로 부적절한 대인관계 기술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면 왕따현상에 대한 이러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실제 왕따현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학생들 사회에서 ‘왕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PC통신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활용하여 다루려 한다. 이렇게 PC통신상의 글을 인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됨으로 해서 비교적 왕따현상에 대해 솔직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곧, 왕따현상은 겉으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미묘한 문제이지만, PC통신에서는 왕따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오늘날 청소년들은 PC통신과 인터넷 등을 일상생활에 적극 활용하면서 의사소통 영역을 넓어가고 있다. 곧, 청소년들은 채팅과 E-mail, 그리고 게시판 글쓰기 등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의 세계를 열고 있다(M.Poster, 1998: 58). 이렇게 그들은 자신만의 독자적 의사소통 영역을 열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형성해 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있어, 컴

퓨터를 매개한 의사소통을 배제한 삶이란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고 있으며, 점점 컴퓨터를 이용한 의사소통의 영향도 커지고 있다. 말하자면, 요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채팅과 게시판 글쓰기, 그리고 E-mail 등은 그 자체로 그들의 고유한 언어양식이며 동시에 그들의 삶 자체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PC통신상에 나타난 왕따의 중요한 사례를 인용하여 왕따현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PC통신에 학생들이 직접 올린 왕따에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왕따현상이 얼마나 다양한 유형을 띠고 나타나는가에 대해 볼 것이며, 동시에 왕따가 오늘날 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볼 것이다⁴⁾.

유형 1.

(사례 1)

울 반에는 따 가 있는데, 개가 왜 따 가 되었는지 말 해드리죠

첫째, 갠 너무 친한 척 한답니다(하나두 안 친한데 괜히와서 친한척 참견...).

둘째, 너무 잘난 척하고 좋은건 지 혼자 다 한답니다(나쁜).

셋째, 성질이 너무 드럽답니다.

넷째, 얼굴도 못생기게 이쁜 척하고, 깨끗한 척 하는게 알고보면 더럽답니다.

이 외에도 많은데 생각이 안나네요.

그렇지만 이 사회에선 '따'라는건 없어야 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단점이있고 그런 점은 고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엔 '따'돌리는 애가 있고 '따'돌림 받는 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서도 행복한 면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싫으면 혼자 싫어 합시다. '따'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따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사례 1에서 보면 잘난 척하고, 예쁜 척하며 좀 과장되게 행동하면 왕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잘난 체하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그냥 보아주지 못한다. 이 글을 쓴 학생도 '왕따'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조차도 왕따 당하는 아이를 싫어하고 있으며 은근히 왕따에 가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왕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싫어하고 있음을

4) 아래에서 제시된 왕따의 몇 가지 유형은 1998년 11월 중 당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왕따에 관련된 글들을 학생들이 키릴(Kiril)의 '십대들의 이야기' 난에 직접 올린 것들이다.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발췌한 것은 아니고 논자가 보기에 왕따의 대표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 사례를 갈무리하였다. 물론, 논자의 지난 몇 년 동안의 교직경험과 실제 상담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바를 중심으로 왕따 사례를 선정하였고, 아울러 넋넉 학생들과의 대화글 통해 실제 교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글을 선정하려 하였다.

알 수 있다.

(사례 2)

왕따들을 보면 이렇다!!!!

1. 자기만 안다...

완전 이기주의.. 인간들...그러니까..왕따 되지....

2. 무지 깔끔 떴다.

자기가..머 깨끗하다구..옆에서..무지하게 깔끔 떴다...

3. 괜히 잘난 척한다...

아는 것두 없으면서..아는거 나오면..박사 처럼 얘기한다...

이러니까..왕따 되지...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지 머~~

않 그래여?

그러니까..왕따 아저씨...아줌마들..성격 좀 고쳐여...!!!

사례 2에서도 잘나지 않은 학생이 잘난 척하고 깔끔하지 않은 학생이 깔끔한 척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됨을 볼 수 있다. 곧, 오늘날의 학생들은 그런 행동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메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간다. 또 다른 정황들로 미루어 보면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깨끗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척하는 학생도 주변의 여러 학생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어 따돌림 당한다. 이상의 사례1과 사례 2를 포함하는 유형 1의 예에서 보면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먼저 문제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왕따를 가하는 학생들도 좀 잘난 체하는 학생을 그냥 보아넘기지 못하고 문제로 삼으면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괴롭힌다. 그 만큼 요사이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에서 보며 자기 좋은대로 해석하면서 살아간다.

유형 2.

우리 반에는 왕따가 2명 정도 있습니다....

우선 김모씨의 경우에는

우선 생김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곱슬인데다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너무 두꺼워서 꼭 무슨 소세지를 보는거

같죠. 그리고 입을 맨날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왕따 아닌 왕따가 됐죠...

그리고 다음으로 또 다른 김모씨는

얼굴이 외계인이랑 거의 흡사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는 또 어찌나 큰지, 또 게도 머리가 완전 곱슬입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너무 엉뚱합니다..

하루는 국어 선생님이 자기가 주제발표할 주제를 써오라고 했는데
 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제1. 짜장면과 간짜장의 차이..
 주제2. 짜장면은 왜 맛있을까??????
 이렇게해죠. 숙댄말로 약간 떨하죠 뭐...
 그러나 대부분 우리반 애가 따 당하는걸 보면
 별로 심한거 같지가 않아요,,
 단지 이상하게 생겼기 땀시
 같이 놀려고 하지 않는 것 뿐이지..

유형 2에서는 외모가 이상하게 생겼고 거기에다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있다. 생긴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아이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못생긴 친구들을 노골적으로 보기 싫어하고 같이 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만큼 오늘날 영상문화에 영향을 받고자란 청소년들은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어울리는 다른 친구들도 외모가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런 친구들을 같이 놀아주지 않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며 왕따까지 시키고 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 외모는 상당히 중요하며 외모를 가꾸는 데 실로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또 그들은 자신의 몸매를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젊음을 발산하려 한다. 그런 그들이기에 외모가 이상한 친구의 경우는 친구로 여기지 않으며 심지어 홍보고 괴롭히기까지 한다.

유형 3.

안녕하세요

내 친구가 왕따를 당합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반에 A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왕따인 친구는 왕따 당하기 전에 그 아이와 조금 친했습니다. 그런데 A란 녀석이 왕따인 친구를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딪힌 친구는 발가락이 아프다며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A는 웃기지만 이 새끼! 불만 있으면 병원가! 마친놈!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따인 아이는 입이 무거워서 그냥 부모님께 넘어졌다고 하고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부터도 A는 왕따인 친구를 계속 때리구 약올렸습니다. 미안하단말도 안하구,,,,, 그래서 왕따인 친구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따 친구의 엄마가 그 A의 엄마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A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화가나서 반아이들에게 저새끼랑 놀지마라고 했습니다.

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아이와 놀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이를 따돌리는데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라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왕따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유형 3에서는 특정한 이유 없이 강자가 약자에 대해 폭력을 가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다. 글 속의 인물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 수 없지만 A는 분명 왕따를 당하는 아이보다 훨씬 힘이 있어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거기에다가 학교에서 제일 힘이 강한 자(일명 짱)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 아이들 전체를 동원해서 특정 학생을 왕따시킴을 알 수 있다. 아마 왕따의 유형 중에서 흔히 잘 나타나는 경우로서 일반 다른 학생들은 자신이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왕따에 가담하는데, 이 경우 그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특정 학생을 왕따시킨다. 그리고 짱의 비위도 맞추고 그에게 잘 보이려 한다. 그래야만 자신은 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짱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일환으로써 왕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유형 4.

우리 옆반에 영희라는 아이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같은건 없다.
 그렇다고 성격이 못되거나 더럽지도 않다..
 하지만 그 아이 주변엔 친구가 단 한명도 없다..
 단지 그애는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고 조용할 뿐인데..
 희미한 기억으로는 2년 전에 나와 같은 반이었던 것 같다..
 중간쯤 되서 전학을 왔던 것 같은데..
 사실 전학왔선 첨엔 당연히 친구가 없다..
 그러나 2년이란 길다면 긴 시간동안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귄걸까?..
 영희는 그 2년 전부터 왕따가 될 것처럼 보였다..
 난 그런게 너무 싫었다..
 자기와 똑같은 친구를 그렇게 따돌리고 무시한다는게..
 그애에게 최대한 잘해줬다..
 주위 친구들이 왜 저런애한테 잘해주냐고 말리기도 했다..
 그치만 정말 내 성의를 다해서 친절히 대해주었다..
 그렇게 가까워진 영희에게엔 왕따가 되야할 이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지 시골에서 전학을 와서 약간 촌티라고 할까..
 그런 것 외엔 전혀 꺼리는 점이 없었다..
 그리고 새학년이 되어 같은 반에서 친구를 사귄듯한 영희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1년이 지닌 지금..
 남녀 합반으로 인해 한 학급 여학생수가 3분의 1로 줄은 지금..

무심코 내다보는 창밖으로 운동장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영희를 보았다..
 사귀었던 친구와 반이 떨어진걸까..
 마음이 아팠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구석에 쪼그려 살며시 웃는..
 그애의 천진난만한 미소이다..
 시골에서 티없이 자란 영희에게 퇴폐한 도시 아이들의 왕따라는..
 다른 어떤 고통보다 더 아픈 그런 무서움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물론 나도 가끔은 맘에 안드는 친구를 꺼리려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자살까지 부르는 왕따라는 무서운 폭력..
 그것만은 반대이다..
 졸업하기 전에 친구와 함께 웃는 영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난 학교와 친구들을 조금이나마 신뢰할 수 있을 듯..

왕따들은 (-;) 음반의 경우에두..

불쌍한 것 같다.

밥도 혼자 먹고 화장실도 혼자 다니고 더군다나
 시험 볼 때에는 답 맞추고 얘기할 친구들도 없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던 영은이..
 어느날 아이들에게 몰매를 맞는다.

‘.....’

○ 11월 어느날 ○

“야! 박영은 이것좀 해라.” : 홍XX

“그래! 야! 내것해라!~~~(혼자말로 ‘미친년’이라고 해때) : 김XX

아이들은 영은이에게 미술숙제를 시키고 있어따.

“으..응! 알았어. 내가. 내가 이쁘게 해서 줄게.. 엄.. 빨리 줄게..!”

^^ (역지로 웃던 영은이..-;)_

영은이는 학교 옥상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쓱쓱...

교복에 크레파스가 묻던 말던, 물감이 묻던 말던...

영은이는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렸다.

그리구 영은이를 괴롭히는 5명의 여자아이들이 왔다(옥상으로).

“야! 박영은. 너 내가 이쁘게 그리라고 했어 안했어!” : 홍XX

“왜 그래 홍XX야.. 나 이쁘게 열심히 그렸어... 정말이야..” :영은이

“이노니 주글려구 어디서 말대꾸야, 병신카튼년이 흑!” : 김XX

“미안. 해. 다시 그럴게...응? 미안해..봐줘...T-T” :영은이

“스케치북 다 썼는데. 니가 살래? 처음에 잘 해야 할거 아냐!” :김XX

“너 전부터 사람 열받게 하던거.. 오늘 죽을줄 알아.” :홍XX

“미친년. 우리가 밟을까?” : 그외 정XX, 강XX

서럽게 울던 영은이 .. 말도 못 잇는다. 아이들은 그야말로 영은이를 고문시킨 것 같다. 얼마 나 재미가 있었으면 옥상 입구에 내가 들어 선 것도 모르구...(반장인 ‘나’.

공부시간에 애들이 안와서 부르러구 갔음) 난 영은이 부르지도 못하구 바부같이 문
에서 아이들은 지켜봤다.

그러던 중 때리고, 차고, 하던 중에 아이들은 사실- 웃으며

영은이를 옥상의 난간 좁은 공간으로 올라가게 한다. 그리고 묶어버렸다.

발버등을 치던 영은이... 정말.. 안되보였다.

{{그후로 영은이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피해자 영은이는 가해자들이 누군
지 말도 못 하게 되는 정도의 정신병과 오른쪽 다리얇게 되었다... 떨어졌다고 한
다.}}

*가해자들은 잘 다니고 있다. 한번의 실수로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져 버린 것이
다. 그때. 도와 주지 못한 내가.. 많다.*

유형 4의 두 사례를 보면 왕따는 잘난 척 하는 아이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밋상으로 보일 때도 발생한다. 이 예에서는 그 아이의 성
격, 외모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왕따시키는 아이들의 마음에 드느
냐, 들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뿐이다. 그들의 주관적, 일방적 판단에 의해
특정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 시골 출신이어서 같이 놀아주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예 같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학생을 짝어서 왕따시키는
아이들의 숙제를 대신해 달라고 억지를 쓰고 토집을 잡아 그를 집중적으로 괴롭
힌다. 특히 뒤의 사례는 극단적인 왕따의 예이긴 하지만 그 만큼 오늘날 학생들
에게 왕따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이며, 또 한 번 왕따를 당하
는 경우 잘 빠져나오기가 힘들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왕따에 대한 여러 유형의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잘난 척 하는 것에서부터 내성적 성격, 심지어는 외모 등도 왕따의 중요한 이유
가 되고 있다. 또, 별 특정한 이유없이 그냥 왕따시키는 아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왕따가 발생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의 대부분의 학생
들은 소수의 왕따를 시도하는 못된 몇몇 학생들의 수작에 쉽게 동조한다는 점이
다. 과거의 학생들의 경우에도 왕따가 없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때는 터무
니없는 왕따의 경우는 주변의 여러 학생들에게 거의 통용되지 않았고 다른 학생
들의 동조를 거의 얻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학생들과 차이가 있다. 오늘
날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이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런 잘못된 행동을 쉽게
저지르며, 별로 도덕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도 아주 힘이 약하고 보호
받아야 학생까지도 왕따시키는데, 이 경우 그는 자신이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학생을 왕따시키는데 가담한다. 그 만큼 오늘날 학생들은 자신의 주위세계
를 주체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반응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힘센 아이의
뜻에 쉽게 동조하며, 자기만 편하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생각이 만연하고 있

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학생들은 과거의 학생들에 비해 사회정의나 공공선과 같은 공적인 차원의 일에 관련되는 것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신 자신의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구하며 동시에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편리하게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상에서의 글들은 PC통신에 10대들이 직접 올린 것들이다. 요즘 PC통신에는 아예 10대들이 자기들만이 주로 사용하는 ‘왕따가 왕따에게’라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다. 위의 게시판 글들에 의하면 왕따라는 현상은 왕따를 당하는 학생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학생, 심지어 가해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겨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왕따현상은 왕따와 별 관계 없는 경우 학생들에게까지도 상당한 심적인 스트레스를 미치게 되며 두려움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왕따가 정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겉으로 내놓고 직접 말 못하며 살아간다. 또 일부의 학생들은 자신이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다른 아이를 고의로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처럼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있어 왕따현상은 과거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학교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IV. 따돌림 현상에 대한 교육적 대책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날 청소년들의 독특한 행동양식에 대하여 영상문화적 차원과 입시문화적 차원에서 설명하였고, 그런 바탕 위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어나고 있는 따돌림의 여러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왜 왕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왕따의 실제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제반 논의에 바탕하여 우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왕따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왕따현상이 주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학교교육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왕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요 교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탈피하여 민주시민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곧,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학교교육은 영어·수학과 같이 입시에 중요한 과목을 공

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또 국가의 교육정책이나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에서도 알게 모르게 학교교육을 중요 교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이렇게 중요 교과목 공부에 치중하는 학교공부 과정에서 학생들은 심각한 인간성의 황폐화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요즘 학생들은 공부 본래의 목적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갖지 않고 무조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명문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지식공부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합의 내지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왕따를 비롯한 각종 청소년비행 현상도 넓게는 민주시민 의식의 부족 내지는 결여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 세상사를 파악할 수 있어서,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왕따와 같은 동료 괴롭힘 현상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학교교육은 지나친 성적위주와 시험교육에 치중하는 나머지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신장시키는 민주시민 교육을 소홀히 해왔다. 왕따와 같은 청소년비행의 심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영어·수학 등의 도구과목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기능적 효율성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인격의 함양 및 타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급격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목격하면서도, 현재와 같이 학교교육이 지식위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교육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것이다.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학교와 교사가 없어도 지식공부를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가상학교가 세워지고 또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이 생겨나면서 굳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양질의 지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양한 위성방송의 교육전문 채널이 설립되면, 어떤 학교교육보다도 지식공부에 관한 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학교는 다른 사회기관과 가상교육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학교만의 고유한 역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학교의 고유한 역할정립을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시민이란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서 주위환경을 둘러싼 각종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특히 최근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는 몇 가지의 주어진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무수한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은 더 이상 어떤 주어진 정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 교육에 얼마만큼 충실하였는지 반성해 볼 때이다. 교육개혁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말로는 많은 것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의 학교현장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변화란 찾아볼 수 없다. 아직도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정립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자체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오늘날 학생들이 상당히 거친 행동을 보이며 잘 참지 못하고 즉흥적임은 모든 교육적 잣대를 획일적인 교과목의 틀에 맞추어 교육시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보면, 그들이 가장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대개가 시험에서 생각만큼 점수를 받지 못할 때이거나, 성적표를 집의 부모님에게 알릴 때라고 한다. 그 만큼 그들은 학교생활 중에서 성적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성적을 그들 삶의 전부로 받아들인다. 물론 성적에 관심이 없는 학생의 경우는 아예 무시하면서 그 밖의 다른 일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는데, 그것은 거의가 비행 현상과 연결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왕따를 비롯한 각종 학생폭력에서 무난히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현행의 중요교과목 위주의 공부와 시험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각자가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여하히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체제로 교육적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등 모든 교육 관련자들의 교육적 인식전환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의 구성원들은 입시공부만을 공부라 생각하지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을 공부라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에 덩달아 학부모들도 올바른 공부의 의미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하며 자기 자식위주의 교육관을 갖고 있다. 이제, 교육의 모든 담당자들은 중요 교과목의 지식내용을 학습하는 것만을 공부라 생각하는 경향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공부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으로 학교교육은 TV, 비디오, 영화,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의 각종 영상매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영상매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자라온 세대들이다. 그런 연유로 그들은 영상매체에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각종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삶을 영위해 간다. 문제는 그들이 영상매체가 갖는

각가지 부작용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주체적 입장에서 각종 영상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정보화의 기술적 논리만을 강조하여 영상매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만을 익히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오히려 학교교육에서는 그런 매체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각종 영상매체의 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즉흥적, 직접적 그리고 단순 반응적 태도로 바라보며,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하여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영상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이야기들을 쉽게 믿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동조한다. 오늘날 각종 영상매체의 위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는 하루라도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컴퓨터 등을 보지 않고 지나는 날이 거의 없다. 통신과 인터넷은 그들의 중요한 삶 그 자체가 되었으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요사이 그들은 영상매체의 화려한 스크린에 비친 대중적 스타나 운동선수들을 자신들의 삶의 모델로 생각하는 경향도 짙다. 그만큼 그들은 각종 영상매체에서 내보내는 영상물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대중적 스타 내지는 현대판 이상들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학교교육은 영상매체를 단지 기술·경제적 차원에서 보지 말고 문화적·의미론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매체 비판 교육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현행의 학교교육에서도 물론 몇몇 교과목에서 영상매체를 바라보는 안목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학생들의 비판적 안목을 키우도록 하는 데 역부족인 것 같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매체와 관련된 교과목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과와 윤리과 과목에서 영상매체 관련교육을 더욱 확대·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교육당국에서는 정보화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정보화 교육은 학교현장에 많은 컴퓨터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터 처리기술 교육을 잘 시키면 급속하게 도래하는 정보화 사회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인간 양성이 가능하다는 식의 기술중심적 정보화 교육만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런 기술적 차원에서의

5) 얼마 전에 있었던 H.O.T의 공연장(1999. 9. 18일 잠실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라. 그들에게 있어 H.O.T의 존재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설신을 하였고, 그 중 한 명은 오빠의 이름을 몰스 제철하기 위해 자살까지 하였다. 바로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있어, 좋아하는 가수나 운동선수 그리고 탈렌트 등은 그들 삶의 중요한 이상이 되고 있다.

정보화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술지향적 정보화 교육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정보화 사회의 문화론적·의미론적 논리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각가지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좀더 완전한 의미에서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려 한다면, 정보기술의 일방적 논리만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적 측면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런 역기능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의 함양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층 차원 높고 성숙한 정보화 교육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 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나아가 정보화에 적합한 사회적, 윤리적 의식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학교 정보화 교육을 매체 차원의 기술적 수준에서만 다룬다면,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학생들의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또, 학교교육을 지나치게 기술적 능력습득에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 학교교육이란 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술적 지식의 습득은 학교가 아닌 다른 사회기관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주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학교교육은 학교교육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데, 우리는 학교교육의 고유영역을 문화적·의미론적 차원의 정보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컴퓨터 기술을 배우고 교과서의 중요 내용을 학습하는 곳으로써 학교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영상매체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신적·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학교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는 영상매체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가치체계의 변화와 규범의식의 변동 그리고 새로운 의사소통 양식의 등장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그에 따른 대응방식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화는 산업사회와 다른 윤리의식이 요청될 수밖에 없는 데 이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더 없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각종 매체를 비판적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 자기 입장에서 성찰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은, 사물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인식능력의 향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제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복잡한 주위환경에 반응하여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각종 영상매체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기존의 안정된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과 위기를 경험할 가능

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선택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찰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다. 말하자면,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문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바로 자기성찰적 교육⁶⁾의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자기성찰적 능력을 스스로 힘으로 키워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왕따를 비롯한 각종 청소년비행 현상도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육담당자들은 현재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의 특성을 직시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 내지 행동모습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요즘 학생들은 과거의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다른 독특한 행동특성을 보인다. 특히 그들이 TV, 비디오, 컴퓨터, 광고 등의 각종 영상매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자란 점을 감안하고 볼 때, 그들은 기성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 이전의 학생세대들과도 상당히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행동특성을 보인다. 그들은 어른의 권위를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때로는 당돌하게 보이기도 하며 또 때로는 건방지고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고 어른들은 그들을 무조건 나무라거나 탓하며 함부로 심하게 다루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어른들의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거친 행동을 더욱 자극할 뿐이다. 2년 동안 상담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과 면담한 결과에 의하면, 그들은 어른들의 지나친 간섭과 참견을 아주 싫어하였고, 어른들의 세계를 위선적·가식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른들, 특히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지도와 충고까지도 자신들을 억압·통제하려는 것으로 본다. 그들은 어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 무조건적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자신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모습은 상당히 이중적·위선적이며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차 있다고 하였다. 그들이 보기에 기성세대들은 각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각종 사회악에 깊숙히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여러 종류의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을 보고 바르게 행동하고 양심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경제계 심지어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어른들은 무수히 많은 사회적 비행에 관련되어 있으며 또 각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6) 자기성찰적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정용교, "사회 의미구조의 변화 자기성찰적 교육페러다임의 형성",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97), 132-158쪽 참조할 것.

고 본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는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함은 참으로 모순적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즈음 그들은 어른들의 이러한 위선적·이중적 모습을 그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를 통해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H.O.T의 ‘전사의 후예’, ‘*We are the future*’⁷⁾에서는 학교폭력의 상황과 어른들의 위선의 세계를 풍자하고 있으며, 서태지는 ‘교실 이데아’에서 학생들의 힘들고 고달픈 생활상을 그려내고 있고, DJ DOC은 ‘빼격빼격’에서 어른들의 엉망진창인 세상사를 노래로 풍자하고 있다.

이제 학교교육의 담당자들은 학생들에게 비친 기성세대의 모습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들의 변화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담아낼 수 있도록 자신들부터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단순한 유교적인 권위적 자세에서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무조건 많이 배우고 익히며 어른들에게 고분고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좀더 솔직하고 가식없이 학생들을 대하고 새로운 민주적 자세로 그들과 대화하여야 한다. 곧, 교육 담당자들은 권위주의적 자세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느끼고, 사고하여 행동하는 참여자 내지는 삶의 안내자로서 새로운 모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세의 전환이 전제될 때 교육 담당자들은 좀더 본질적 의미에서 그들의 세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들과의 내면적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과 학생들 상호간에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적인 대화가 열릴 것이며, 나아가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간격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육적 여건 내지 상황이 조성될 때 학생들도 서로간에 상호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육의 장면에서 서로간의 이해와 뜻이 통하는 진정한 의사소통 내지 대화의 영역이 열릴 때 학생들은 그들끼리의 인격의 소중함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오늘날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는 왕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담당자들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더욱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7) 여기서 H.O.T가 부른 *We are the future*의 노래 내용을 잠깐 소개해보기로 한다.

“Hey Everybody look at me! 이제는 세상을 틀을 바꿔버릴거야! 내가 이제 주인이 된거야! 어른들의 세상은 이미 갔다. 남아 빠진 것, 말도 안되는 소리 집어 치워. (The) future is mine. 1. 2 and 3 and 4 and Go!!

1. 아직까지 우린 어른들의 그늘 아래 있어, 자유롭지 않은데 이런저런 간섭들로 하루 지새우니 피곤할 수밖에.

1. 언제까지 우릴 자신들의 틀에 맞춰야만 직성이 풀리는지,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우린 지쳐 스러질 것 같아. 난 내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들거야! 똑같은 삶을 강요하지마. 내안에서 꿈틀대는 새로운 세계 난 키워가겠어. 또 믿겠어 믿겠어 잘해나갈거라 나는 믿겠어. Hey Hey 이제 다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아줘요. I don't need you I don't wanna help you we want it. 우력이 Let's go.

1. 한번쯤 나도 생각했었지.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모습일까.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Oh baby-

요컨대, 교사는 이전처럼 학생들에게 단순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지식을 가르치려고 애쓰기보다 그들이 직접 느끼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자유와 생각의 여지를 주어 그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도록 여건을 조성 해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느끼고 사고하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교사들도 그들을 어떤 획일화된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이 반사회적이거나 지나친 이기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이해하면서 그 학생과 진실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 선생님들은 과거처럼 권위주의적 자세로 학생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더 개방적·민주적 자세를 갖고 그들의 독특한 행동을 이해하고 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입장 전환이 전제될 때 학생들도 선생님들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간에 진지한 대화의 장이 열릴 때 비로소 학생들도 기성세대를 신뢰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런 신뢰의 여건이 조성될 때 왕따를 비롯한 각종 청소년비행 현상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V.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왕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영상문화적 및 입시문화적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며, 그런 바탕 위에서 왕따현상이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아주 다양한 유형으로 야기되고 있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물론 왕따현상의 다양한 유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제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왕따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교육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흔히 우리는 왕따를 비롯한 학생비행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상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학교와 가정은 좀더 긴밀한 연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 외에도 우리는 교우도 조사지를 사용하거나 또래집단 상담제도를 활성화

하고 심화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각종 왕따 대책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된다. 물론 교육담당자들의 이러한 의식 개혁적 노력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단기적 차원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의 지속적 관심과 강력한 단속이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왕따에 대한 근본적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교교육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의에서는 이제까지의 중요교과 위주의 학교공부를 건전한 민주시민 교육으로 교육적 질서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고, 또 최근의 영상매체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매체비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그리고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무조건 건방지고 버릇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속성에 대해서 좀더 개방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삶의 속성을 이해해야 함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질서를 모색해봄으로써 학생들 각자가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과 상황을 비판적이면서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학생 각자의 주체적 비판의식과 자기성찰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야말로 왕따와 같은 비열하고 비인간적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학생 각자의 성찰적 능력의 함양은 바로 왕따를 비롯한 각종 학생비행 현상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학교교육에 대한 근본적 관점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고서도 달성될 수 없는 몹시도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현재 우리의 학교교육은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처럼 계속 입시위주의 교육과 기술적 측면에서 정보기술 교육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면, 청소년들의 심성은 더욱 삭막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제2의, 제3의 왕따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형태야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결코 왕따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도 더욱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거친 행동 내지는 어른의 관점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서 현명한 교육적 결단이 요청된다. 그러한 현명한 교육적 결단만이 현재의 왕따현상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성기(1997). 정보혁명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한국사회와 언론(제8호),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편, 한울.
- 김준호(1998).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제1집).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 구본용(1998. 12). 따돌림의 실태와 지도 대책, 교육월보(통권204호). 교육부. 동아일보. 1999. 1. 18.
- 박명진(1991). 청소년과 새로운 미디어문화: 포스트모던 문화의 관점. 사상(가을호).
- 서영창(1999). 왕따 극복하기. 산성미디어. 조선일보. 1998. 12. 18.
- 조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중앙일보. 1999. 1. 18.
- 정용교(1997). 사회 의미구조의 변화와 자기성찰적 교육패러다임의 형성. 경북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_____ (1998). 고교생의 태도변화와 새로운 수업자세의 요청, 지역동향(통권 69호). 대구사회조사연구소.
- _____ · 백승대(1998. 10). 상담을 통해서 본 교실문화, 학교교육연구(제2권 2호). 영남대학교 학교교육연구소.
- _____ (1999). 영상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형성, 한국청소년연구(제9권 2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주은우(1996). 영상문화 시대의 주체, 경제와 사회(제29호). 한울.
- 이선이(1998). 21세기의 새로운 주역 넷세대. 정보혁명, 생활혁명, 의식혁명, 백산서당.
- 이정호(1998). 포스트 모던 문화읽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영란(1999. 1). 집단 따돌림, 이렇게 지도하라, 새교육(통권 제531호). 한국교육신문사.
- 하종원 · 백옥인(1998).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 정보화 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한국언론학회 · 한국사회학회 위음. 세계사.
- Poster. M(1995). Second Media Age. 이미옥 · 김준기 옮김(1998), 제2미디어 시대. 민음사.

ABSTRACT**A Study of the “Wangtta Phenomena(Isolation from Their Fellow Students)” in the Korean Society**Chung, Yong-Kyo^{*}

The young generation seems to live a way of their own unique life. Also, those in Korea nowadays proclaim their own rights. In addition, the old generation doesn't really understand the aspects of these youth-unique speech and behaviors. Old generation can only guess that young men seem to be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y used to be when the adults were young. With this point in mind, it is necessary for us to adjust ourselves to their way of thinking and their unique culture in order to know them rightly.

In this paper, I try to deal with the traits of youth-unique behavior and to look for the methods that will solve the youth problems. Especially I have to explore these matters focusing on “Wangtta phenomena”, one of the most serious youth problems in Korean society today.

First, we will have to review a critical overview of major theoretical perspectives about “Wangtta phenomena” in terms of the screen culture and the education only fo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en, we will have to carefully examine the diverse patterns of the “Wangtta phenomena” which appears on the PC communication network. Exploring these matter, we will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e “Wangtta phenomena” in Korean school campus. Finally, we will have to look for the educational solution of the “Wangtta phenomena”. In sum, this study will present a preliminary sketch about how seriously the “Wangtta phenomena” in Korean school campus will appear and how much young men will be influenced by it.

* Yeung-Nam University